

# 차문화와 예절에 관한 연구:

## 연지화개기호차를 중심으로

A Study on Tea Culture and Manner:  
focused on the Blooming Lotus Pond Tea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가족문화 소비자학과  
박 사 이 일 희\*

Dept. of Family Culture and Consumer Science  
Graduate school Sungshin Womans' University  
Doctor : Il Hee Lee

### 〈 목 차 〉

- |                 |            |
|-----------------|------------|
| I. 서론           | V. 연지화개기호차 |
| II. 차문화와 예절     | VI. 결론     |
| III. 다례의 역사적 고찰 | 참고문헌       |
| IV. 새로운 다례의 제언  |            |

### 〈 Abstract 〉

This is a historical study of the tea culture and its manners after checking the origin of the tea culture in Korea. Also I created the Blooming Lotus Pond Tea which can be utilized in various meetings or at homes in connection with the tea culture and etiquette by studying good manners, clothing and light refreshments in “Kyukmongyogyul” by Lee-E, “Karyejibramdo” by Kim Jang-Seng and other books of the Chosun Dynasty.

I created the Blooming Lotus Pond Tea by referring to the tea-ceremonies described in the poems by Hong Inmo, his wife, Lady Suh, and her descendants. They can be better harmonized with the modern tea culture rather than the strict procedures of traditional court ceremonies or marriage, funeral, and other formal tea ceremonies. About the costumes of the nobilities, that is especially referred to Kyukmongyogyul by Lee-E of the Chosun Dynasty for the etiquette, also “The Living Manners” by Professor Lee Gilpyo and Choi Baeyong. In addition, the tea-food is made based on “the five elements”.

\* 주저자 : 이일희 (sohaklee@hanmail.net)

The Blooming Lotus Pond Tea is made of frozen lotus flowers and prepared in the lotus formed broad-rimmed tea-utensils and supposed to be shared with family members or guests. It's recommended to hold a poetry-party with a tea-party.

At present, this kind of daily tea ceremony is being developed at homes. It'll be desirable if it could recreate the traditional way as a ceremonial tea culture. In that case, it'll regain the quality of the traditional etiquette by harmonizing tea culture and manners. Such a tea culture can contribute to the quality of people's ordinary life and the identity of our country.

Key Words : 차문화와 예절(Tea Culture and Manner), 연지화개기호차(The Blooming Lotus Pond Tea), 의식다례(The Formal Tea Ceremony), 생활다례(The Daily Tea Ceremony), 냉동연화차(The Frozen Lotus Flowers), 차회에서 시회(A Poetry-Party with a Tea-Party)

## I. 서 론

예로부터 사람들은 차를 마시며 대화를 통해 정신적으로 긴장을 풀고 신체의 건강을 유지시켜 왔다. 이러한 차문화는 고조선시대부터 있어왔으며 삼국시대와 고려시대, 조선시대까지도 그 정신의 맥이 이어져 우리민족의 정신 속에 남아있다. 그러나 임진왜란으로 인하여 차문화의 맥이 잠시 끊겼었지만 근대 국제 교류가 활발해지고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이 고조됨에 따라 차생활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현재는 차문화가 대중화와 더불어 예술적 차원에 이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차문화, 예절, 다례를 정의한 후 차문화와 예절의 조화가 가장 잘 이루어진다고 생각되는 다례에 대해 역사적인 고찰을 하고자 한다. 이러한 다례 중에서 엄격한 궁중 의식이나 관혼상제의 의식다례 보다는 조선시대 사대부가의 부인 영수합 서씨와 그 가족이 쓴 차시(유한집의 연귀)를 통해서 현대의 차생활과 조화되는 연지화개기호차를 창안해보고자 한다. 이에 따르는 몸가짐, 마음가짐의 예절은 조선시대 이이의 격몽요결에서 구용과 구사를 참고하고, 김장생이 그린 「가례집람도설」의 배

례법을 인사예절(절)의 기본으로 하며 기타문헌에서 복식과 다과 등을 참고하고자 한다.

연지화개기호차는 연꽃의 화심에 차를 넣어 냉동실에 보관했다가 연지다기에 우려서 가족과 손님이 화목하게 나누어 마시는 차이다. 이때 시회를 하면 정신적 차원의 질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서양문물의 이입으로 우리의 전통예절이 본래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는 현대에 차와 예절이 조화된 생활다례의 한 형태인 연지화개기호차를 실생활에 활용함으로써 국민적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의 정체성을 살려나가고자 한다.

## II. 차문화와 예절

### 1. 차문화의 정의

차문화는 다사(茶事), 음다(飲茶), 공다(供茶), 제다(製茶), 다례(茶禮), 차회(茶會), 차도구(茶道具), 복식(服飾), 다과(茶菓), 차음식(茶飮食), 다기(茶器), 재배(栽培), 육종(育種), 명상(冥想), 참선(參禪)등의 차생활을 통하여 물질적, 정신적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멋과 예술이다. (최남숙·이일희, 2004)

## 2. 예절의 정의와 기능

예절이란 일정한 생활문화권에서 오랜 생활관습을 통해 하나의 공통된 생활방법으로 정립되어 관습적으로 행해지는 사회계약적인 생활규범이다.(慣行性 社會契約的 生活規範) (김득중, 1997)

예절은 자기의 분한을 바르게 알아 스스로를 닦고, 이겨내는 자기관리로부터 시작하여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사는 조화로운 삶인 중화(中和)에 도달하고자 하는 인(仁)의 사상이 근원이 되고 있다. 따라서 예절은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을 갖고 서로 도우며 화합하여 살아가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예절의 기능은 차생활 속에 녹아들어 차생활과 잘 조화될 때 사회 공동체의 고급문화로 발전하게 된다. 이것은 다례(茶禮)의 형태로 발전하여 일상생활과 의식에 표현된다.

## 3. 다례(茶禮)의 정의

다례(茶禮)란 ‘사람이나 신(神)에게 예(禮)를 갖추어 차를 끓여 주고 마시는 일’ 또는 그러한 법식(法式)이다. 다례는 흔히 행다례(行茶禮)라고 했으며, 다의(茶義)라고도 했다. 오늘날 영어로는 tea service, tea ceremony, tea ritual로 풀이된다.(정영선, 2002) 즉 예절의 본질인 정성과 사랑, 공경의 마음을 일상적 차생활과 의식에 가장 잘 표현한 것이 다례이다.

## III. 다례의 역사적 고찰

### 1. 고조선(B.C. 2333~B.C.108)

고조선은 자연에 순응하면서 하늘을 섬기는 신선사상(神仙思想)을 가진 선인(仙人)을 중심으로 정치, 종교, 제천의식(祭天儀式)<sup>1)</sup>등이 계승되었으며 이들에 의해 선도수련의 방법이 발달되었다. 이러한 제도는 고구려의 선인도랑(仙人徒郎) 제도, 신라의 화랑도(花郎徒·風月徒)에 전승되었으며, 이들의 수행덕목인 화랑도(花郎道), 풍류도(風流道)의 정신이 훗날 한국의 차정신으로 발전하였다. 이 제도에 참여하여 선도를 수련하는 선인(仙人)들은 거의 다도수련(茶道修鍊)을 쌓아야만 했다.(석용운, 1993) 제천의식이 기원이 된 신라의 팔관회 때에는 차를 마시는 절차가 매우 중요시되었다(정영선, 1998) 따라서 의식다례의 기원은 고조선의 제천의식이라 할 수 있다.

### 2. 가야(B.C.42~A.D.562)

일연(一然)의 「삼국유사(三國遺事)」에는 신라 30대 법민왕(法敏王 : 文武王)이 서기 661년에 영을 내려 가락국의 수로왕을 위한 제전을 받들도록 하였다. 이에 “17대손인 갱세급간(廣世級干)이 조정의 뜻을 받들어 제전(祭田)을 주관하여 매년 세시 때마다 술과 단술을 빚고 떡, 밥, 차, 과일 등의 여러 제수를 올렸다.(王之十七代孫廣世級干 祈稟朝旨 主掌厥田 每歲時釀醪醴 設以餅飯茶菓庶羞等奠)”(일연 저, 김원중 옮김, 2003)고 하였다. 위의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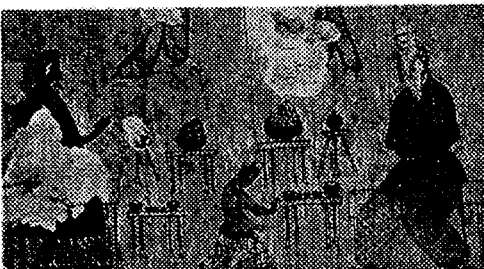
1) 하늘을 숭배하고 제사를 지내는 원시종교의식. 부여에서는 영고(迎鼓)라 하여 추수를 감사하는 뜻으로 설탈에 지냈으며(운평어문연구소편 국어대사전 o~ㅎ, p.2349) 삼한(三韓)때 예(滅)·마한(馬韓)에서는 무천(舞天)이라 하여 농사를 마치고 10월에 지냈다.(위의 책, ㄱ~스, pp.1192~1193) 고구려는 동맹(東盟),백제는 교천(郊天), 신라는 팔관회(八關會)라 하여 하늘신(天神)과 민족신에게 제사지내고 춤추고 즐겼다.(위의 책, p.880) 정영선은 「한국 차문화」에서 신라 팔관회때 왕과 신하가 차를 마시는 절차를 매우 중요시하였는데 이것은 위의 제천의식이 기원이 되었다고 하였다(정영선, 1998)

을 보면 가야에는 차가 전래되어 차 마시는 풍습이 있었고 차를 제물로 제사에 올렸던 것으로 짐작된다. 즉 조상을 위한 제례의식 속에 다례의 절차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으로 가야에서는 의식다례가 행해졌다고 할 수 있다.

### 3. 고구려(B.C.37~A.D.668)

고구려에는 무덤에서 나온 병다(餅茶), 고구려 무용총벽화와 각저총의 벽화(1940년 만주 집안현 통구에서 발굴), 불교의 전래(소수림왕 2년)로 인한 공양물, 유학생과 중국승의 왕래로 차가 유입되어 고구려인이 차생활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무용총 벽화에는 정돈된 탁자 위에 잘 담아진 음식과 의자 위에 바르게 앉아 있는 주인과 손님, 그리고 무릎을 꿇고 있는 동자의 모습에서 차로써 예를 표하는 다례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또 시녀인 듯한 두 사람의 여인이 다반에 음식을 나르는 모습도 다례의 표현이라고 본다. <그림 1>과 <그림 2>에서 주인과 동자 그리고 시녀의 정성을 다한 예스러운 손님을 위한 생활다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1> 舞踊塚① (主室天井壁 接見圖, 5세기 후반)



출처: 석용운, 韓國茶藝, 1993, p.290

<그림 2> 舞踊塚② (主室天井壁 接見圖, 5세기 후반)



출처: 최무장, 임연철, <고구려 벽화고본>, 1992, p.34

### 4. 백제(B.C. 18~A.D. 660)

1971년 무령왕(武寧王: 501~523)릉의 묘에서 여러 개의 찻잔이 발굴되었고, 백제의 대표적인 미륵사지 석탑에서도 찻잔이 출토되어 백제 때 차문화를 짐작할 수 있다. 무령왕릉에서 발굴된 동탁은잔은 궁궐에서 왕과 왕족들이 찻잔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불교가 발달한 백제에서 스님들이 부처님께 차공양을 했으며 차를 마시며 수행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미륵사지 석탑에서 발굴된 찻잔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이일희, 2004) 이로 미루어 보아 백제의 다례는 궁궐 내 왕실과 미륵사지 사원에서 왕과 부처님께 차를 올리는 헌공과정에서 의식다례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며, 일상생활에서는 생활다례가 이루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 5. 신라(B.C.57~A.D.935)

신라에서는 왕과 승려, 선인과 화랑, 학자와 선비, 그리고 일반 백성들까지 차를 마셨다. 사선의 유적지, 다연원의 기왓장, 충담의 미륵세존 헌공 및 경덕왕께 헌다, 언정영 찻그릇,

보천 효명대자의 차공양, 법주사 회견보살상의 헌다잔, 최치원이 당에서 보낸 편지 등을 보면 신라시대에는 산과들, 사원, 궁전, 민가 등에서 의식다례와 생활다례가 이루어 졌음을 알 수 있다.

## 6. 고려(918~1392)

고려시대의 차문화는 앞 시대인 신라의 차문화를 받아들여 더욱 융성 발전하게 되었다. 고려 왕실에서는 초기부터 차가 귀중하게 쓰여져 불교의식은 물론이거니와 국가의식에도 진다예식(進茶禮式)이 필수적으로 따랐다. 연중행사인 연등회(燃燈會)와 팔관회(八關會)에서는 다과(茶菓)를 베풀고 음악과 춤으로 부처님을 즐겁게 하여 국가와 왕실의 태평(太平)을 기원했는데 여기에서 행해진 진다예식은 까다롭고 엄격하여 의식화된 고려시대의 차생활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태묘(太廟)에 부제(祔祭)하는 의식<sup>2)</sup>, 북조(北朝)의 조사를 맞이하는 의식, 태후(太后)를 책봉하는 의식, 원자(元子)의 탄생을 축하하는 의식<sup>3)</sup>, 왕태자를 책봉하는 의식, 공주 하가(下家)의식, 원회의(元會義), 대관전(大觀殿)에서 군신(君臣)을 연회(宴會)하는 의식(동아대학교 고전연구실, 1971)등에 진다예식(進茶禮式)이 있었다. 고려에 와서 차의 사용이 늘어나자 궁정에는 다방(茶房)이라고 하는 차를 공급하는 관청이 생겼고, 큰 사원 주위에는 다촌(茶村)이라고 하여 차를 생산하여 사원에 바치는 부락까지 생겼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려 왕실에서는 길례, 빈례, 가례, 흉례시 진다예식이 있었으며 송나라 서긍이 쓴 고려도경(서긍저, 1977)에는 일반백성들도 차생활 속에 예를 갖추었음이 보인다.

또한 왕이 전사한 군인의 처자, 관리의 나이가 많은 어머니와 처에게 차를 하사한 것을 보아 고려 여성들은 왕이 하사한 차를 예로써 받아 마셨음을 짐작할 수 있다. 즉 고려시대에서는 국가, 왕실, 불교의식에서 의식다례가 행해졌으며 일반 백성들은 생활다례를 행했음을 알 수 있다.

## 7. 조선(1392~1910)

조선시대에는 차문화가 다소 쇠퇴하였다. 이성계의 억불숭유정책으로 인하여 사찰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차의 생산량이 감소되고 차를 마시는 풍속도 줄어들었다. 하지만 유교의 원리를 국시(國是)로 하는 한편 불교를 숭상하는 경향이 있어 왕과 승려, 문인, 백성들 사이에 불교를 통하여 차문화의 명맥을 이어왔다.

궁궐에서의 관례적인 제전에는 차의식이 있었으며 고종 때에도 다례의 기록이 있는 것을 보면 조선조 5백년간 계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유교의 주자가례가 들어와 우리의 풍속과 어울려 관혼상제례 등의 가례에 차를 올렸다. 이와 같이 조선시대에는 다례가 궁궐의 관례적인 제전, 그리고 사대부가와 일반 백성의 풍속인 관혼상제례에 정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주자가례」와 「사례편람」을 보면 주부가 점다하여 신위 앞에 차를 따르고, 혹은 맏며느리나 맏딸이 차를 따른다는 내용이 있다. 이것으로 보아 여성들이 다례에 참석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조선시대 사대부가의 영수합 서씨는 (令壽閣 徐氏: 1753~1823)는 여성 문인으로 차를 즐기며 거문고도 타고 시도 지었다. 그의 딸 유한당 홍씨(幽閒堂 洪氏: 洪原

2) 「高麗史」, 卷64, 志 卷第18 禮6 凶禮, p.237-3년상을 마친뒤 그 신주를 사당의 조상 곁에 모시고 나서 지내는 제사  
3) 「高麗史」, 卷65 志 卷第19 禮7, 嘉禮, p.302.

周, 1791년생)와 자부인 숙선옹주(淑善翁主: 정조와 수빈 박씨의 소생, 1793년생)도 차를 즐기며 차시를 남겼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의 의식다례의 시작은 고조선의 제천의식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것은 약4,337년 전의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 후 가야의 조상 제례의식에서 의식다례의 모습을 볼 수 있으며 신라시대에는 오악삼신(五岳三神)과 미륵세존 등 신불에게 올리는 헌다의식 및 왕족과 귀족들의 의식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고려에서는 궁중의 길례, 흥례, 빈례, 가례시 진다의식으로 행해졌는데 왕과 문무백관이 참여했으며 사대부가의 집안에서는 관혼상제 등의 의식에 茶義를 갖추었다.

조선시대에는 궁중다례와 사원다례, 민간다례가 있었다. 궁중다례는 초기부터 말엽에 이르기까지 엄격하고 격식화되었다. 그 예는 세종실록 가운데 외국 사신을 접견하는 빈례의 식중 연조정사의(宴朝廷使儀)의 내용에 복잡하고 까다로운 다례의식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김미희, 1991) 또한 왕세자가 스승과 시강원(侍講阮)의 1품 관리와 빈객을 모아놓고 경서와 사기를 복습하여 회강다례를 한달에 두세 차례씩 베풀었다. 또 조정왕실에서는 정오에 간단한 음식과 차로 임금이나 왕비의 장례 후 3년 안에 혼전과 능소에서 제사를 올리기도 하였다.(정영선, 1998) 사원에서는 불전헌다와 조사제와 대소행사에 다례를 행했으며 민간에서는 관혼상제 때와 원조(元朝), 상원(上元), 삼월(三月), 단오(端午), 유두, 칠석, 중앙, 동지, 납월과 삭망 때에도 다례를 지냈다. 그리고 여성들도 다례의식에 참여했으며 가정에서 차를 즐기고 시를 짓기도 하였다. 즉 조선시대에는 궁중, 사원, 민간에서 의식다례와 생활다례가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

#### IV. 새로운 다례의 제언

위에서 살펴 본 삼국시대 및 고려와 조선의 왕실다례는 현대생활에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 그러나 조선시대 민간다례 중 여인의 다례는 오늘날 차문화를 발전시키는 데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가정에서의 차생활이 자녀의 가정교육에 이바지할 수 있으며 예절교육에도 자연스럽게 연계된다고 본다. 우리는 조선시대 영수합서씨의 가족이 차를 마시면서 시회(詩會)를 하는 모습에서 한 가족의 생활다례의 형태를 발견 할 수 있다. 이것을 통하여 가정에 손님을 초대했을 때 시와 풍류를 즐기는 연지화개기호차를 구상해보고자 한다. 주안점은 차회에 참석하는 사람과 차를 대접하는 사람의 몸가짐, 마음가짐, 인사예절(배례법), 복식예절, 다식, 음악, 차석배치, 차 우리 는 순서, 차시(茶詩) 등에 두었다.

참고한 연귀는 다음과 같다.

이 연귀는 1809년 작이라고 추측되며 영수합 서씨의 딸 유한당 홍씨(幽閑堂 洪氏)의 유한집(幽閑集)에 있다.

서로 보며 환소하면서 (홍인모)

등글게 모여 앉아 술에 취한다.  
 붓을 휘둘러 시를 지으니 (영수합 서씨)

이루지 못하면 벌주로 술잔을 기울이네  
 빙 돌아 서 있는 아름다운 나무를 (홍석주)

좋은 안주로 삼아 불거나  
 차 익으니 시는 더욱 맑아지고 (홍길주)

거문고 맑은 소리 고운 손에 울린다  
 참으로 다정하고 즐거운 마음을 (유한당 홍씨)

가도 가도 버릴 수 없네  
 머리 들고 들어보니 은하수는 기우는데 (홍현주)

이 기쁨 달님에게 물어본다. (홍인모)<sup>4)</sup>

위의 연시에서 우리는 부모(홍인모·영수합 서씨)가 자녀(홍석주; 1774년생, 홍길주; 1786년생, 유한당 홍씨; 1791년생, 홍현주; 1793년생)와 둘러앉아 차와 술을 마시며 거문고와 어우러진 사대부(士大夫) 가정의 화목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조선시대의 사대부 가정을 배경으로 풍류적인 연지화개기호차를 구상하여 손님과 시회(詩會)를 한다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고 본다.

## V. 연지화개기호차(蓮池花開嗜好茶)

### 1. 연지화개기호차의 정의

연못을 형상화하여 만든 연꽃모양의 커다란 연지다기(지름50cm, 높이23cm)에 냉동연화차를 우려 연꽃잎의 성분과 연향을 차와 함께 즐기는 풍류적 생활차이다.

### 2. 연구의 목적

차는 천기(天氣)와 지기(地氣)를 받고 자라 그 성품이 맑고 고결하다. 연꽃은 연못의 진흙 속에서 맑고 고결한 꽃을 피워 세속을 초월한 성인군자의 모습에 비유된다. 이러한 차와 연꽃으로 만든 냉동연화차를 연지다기에 우려서 연꽃을 볼 수 없는 계절에도 연꽃을 감상할 수 있으며 시회를 통해 화목한 차자리를 만들어 정신적 차원을 높이는 데에 목적이 있다.

## 3. 이론적 배경

### 1) 구전(口傳)에 의한 연화차

이틀정도 피었던 연꽃을 꺾어(줄기는 30cm~50cm정도 여유를 둔다) 꽃 부분을 한지로 싸서 공기가 잘 통하는 대청마루의 천정에 매달아 말린다. 다 마르면 꽃만 따서 갖집 속에 넣었다가 따뜻한 물에 우려 마신다. 매화꽃(梅竹梅)을 한 송이 띄워 마시면 더욱 풍류적이다(천안 인체사, 헤민스님 대담, 2000).

### 2) 문헌(文獻)에 의한 연화차

명나라 전춘년이 쓴 「제다신보」(전춘년저, 김명배역, 1985)와 도용이 쓴 「고반여사」(도용저, 김명배역, 1985)에 연화차 만드는 법이 소개되어 있다. 실제로 연화차를 우려마신 예는 청나라 심복의 자서전인 「부생육기」(박희준, 1994)에 나오는 심복과 그의 아내 운이 이다.

「제다신보」와 「고반여사」에 나타난 연화차 만드는 방법은 대동소이 하다.

즉, 차를 연꽃속에 넣어 오프러서 삼겹질로 잡아 매어 하루밤을 재워 향기를 흡착시킨 후 이튿날 아침 꽃을 따서 차잎을 쏟아내어 건연지에 싸서 불에 쪄어 말린다. 차이점은 고반여사에는 백련차에 차를 넣었다고 되어 있다.

「부생육기」에 나오는 운이는 차를 비단 주머니에 싸서 연꽃 속에 넣었다가 아침에 꺼내어 향기로운 차를 우려서 남편인 심복에게 주었다. 운이는 연꽃을 따지 않고 연향이 깃든 차를 만든 것이다.

### 4. 냉동연화차(冷凍蓮花茶)

#### 1) 만드는 법

(1) 2일정도 핀 연꽃을 오전 7시~8시에 채

4) 박희준(1994), 「차 한잔」, 신어람, p.170

취한다.

(2) 연꽃에 잎차를 넣어 오므려서 랩으로 싸고 다시 비닐봉지에 넣는다.

(3) 바로 냉동실에서 보관한다.

### 2) 운반하기

들차회 또는 외국에 가서 행다 해야 할 경우 냉동연화차는 얼음 또는 Dry ice를 넣어 Ice Box에 녹지 않게 잘 보관하여 운반해야 한다.

4,000cc의 Ice box에 Dry ice를 5kg 넣으면 24시간 정도 유지된다. 이 이상 시간이 걸릴 때에는(외국에 갈 경우)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 3) 약리적 효과(안덕균, 1994)

(1) 연꽃에 핀 연꽃을 보고 연향을 취하면 사람으로 하여금 평온함과 안정감을 갖게 해주는 심리적 효과가 있다.

(2) 연꽃잎은 달면서도 약간 쓴맛이 나는데 혈액순환을 개선시키는 효능이 있어 타박상과 종기에 붙이면 낫는다.

(3) 연씨는 신경과민,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다스리는데 탁월한 효능이 있고 소화기능을 증진시켜 주며 콩팥기능을 강화시켜준다.

### 4) 연지화개기호차의 대중화

연꽃은 1일 10시간의 일조량을 받을 수 있는 연꽃이라면 7~8월의 약2개월 동안 피어난다. 특히 우리나라의 천안, 대구, 진주, 무안 등지의 연꽃에서 많은 연꽃이 피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꽃으로 냉동연화차를 만들 수 있으며 또한 연꽃의 잎, 꽃, 연근, 연씨 등에서 녹말과 엑기스를 추출하여 과자, 제빵, 죽, 약품 등을 만들면 연의 약리적 성분을 이용 할 수도 있다.

현재 순천향대학교에서는 연에 대한 활발

한 연구를 하고 있으며, 어떤 사업가는 대단 위 공장을 짓고 냉동연화차 및 엑기스를 만들어 시판을 시도하고 있다.(천안 인체사, 헤민스님 대담, 2000. 8)

현대는 모임이 대형화되고 분위기 창출을 위해 연지화개기호차를 즐기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다. 냉동연화차는 필요할 때 전화를 하면 상업적으로 배달해주는 사람도 있어서 쉽게 구할 수 있으며, 연지다기는 도자기를 비롯하여 오지항아리 뚜껑, 넓은 유리그릇(화채그릇)도 가능하므로 쉽게 생활에 받아들여 질수 있다고 본다.

### 5. 연지화개기호차의 구상 및 주안점

한 가족이 모여 손님에게 차와 다식을 대접하는 가운데 현대의 핵가족 중심사회에서 소홀해지기 쉬운 가족간의 유대를 화목하게 하고 주인과 손님사이에 화합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주안점을 두어 구상하였다.

1) 시어머니를 공경(恭敬)하는 며느리와 아직 미혼(未婚)인 딸이 지난해에 준비해 두었던 냉동연화차로 손님을 대접하는 자리이다. 며느리가 한 여름 울안 연꽃에 핀 연꽃을 한 두송이 따서 화심(花心)에 차를 넣어 여러 겹 싸서 냉동실에 잘 보관했다가 연꽃이 없는 시기에 연꽃과 연향, 다향을 즐긴다.

2) 시어머니는 손수 차를 우려서 며느리와 딸과 함께 손님을 대접하면서 조선시대 사대부가의 전통적인 복식과 예의범절을 나타낸다.

3) 손님들이 차를 마시면서 오색다식을 맛보아 전통다식에 깃든 상징적 의미를 느끼게 한다. 차회가 끝난 후 다식을 조금씩 싸주어 우리나라의 반기문화를 보여준다.

4) 손님들이 다과를 들면서 청담을 나누며



분위기가 무르익어갈 때 시어머니는 시를 지어보라고 권한다. 큰머느리가 경상(經床-小冊床)과 지필묵(紙筆墨)을 들여오면 각자 시를 쓰고, 돌아가면서 읊는다.

## 6. 연지화개기호차와 예(禮)

### 1) 몸가짐과 마음가짐

차생활을 할 때는 항상 기본 동작에 유념하여 예를 표해야 한다. 이이의 구용과 구사를 몸가짐과 마음가짐의 기본으로 한다. (이이저, 이민수 옮김, 2003)

구용(九容)<족용중(足容重), 수용공(手容恭), 목용단(目容端), 구용지(口容止), 성용정(聲容靜), 두용직(頭容直), 기용숙(氣容肅), 입용덕(立容德), 색용장(色容莊)>과 구사(九思)<시사명(視思明), 청사총(聽思聰), 색사온(色思溫), 모사공(貌思恭), 언사충(言思忠), 사사경(事思敬), 의사문(疑思問), 분사난(忿思難), 견득사의(見得思義)>를 차생활에서 행하는 기본 동작의 표본으로 삼아 정성스럽게 차를 우리고 대접하며 마신다.

### 2) 인사예절(배례법)

절이란 상대방에게 공경을 나타내 보이는 기초적인 행동예절이다. 절의 모습은 1599년 예학의 종장 사계 김장생의 「가례집람도설」(김장생, 1990)에서 참고하였다.

연지화개기호차(蓮池花開嗜好茶)에서는 손님과 주부가 평절로 인사함으로써 반가운 뜻을 나타냈고, 두 며느리와 딸은 손님께 큰절로 공경의 마음을 나타냈으며 손님들은 답례절로 답배하였다. 또한 손님과 주부는 가부좌를 하여 편안한 자세로 앉았으며 며느리와 딸은 무릎을 꿇고 앉아 공손함을 표하였다. (이길표·이일희, 2000) 조선시대 예학의 종장 사계 김장생의 「가례집람도설」의 그림대

로 두 무릎을 꿇고 하는 큰절과 평절은 한복과 양장(스커트·바지)에도 잘 어울리는 방법이라고 생각되어 일반적으로 이런 모습의 배례법이 현대생활에 보편화 되면 좋다고 본다.

### 3) 복식

남자 차인은 두루마기를 입어 예를 갖추었고, 혼인 전 딸의 경우는 노랑저고리에 분홍치마를 입고 머리에는 땡기를 드러 땡아 내려서 조선조 처녀의 모습을 연출해 보았다. 혼인한 며느리는 남치마에 옥색저고리를 입었고 남끝동을 달아 아들이 있음을 나타냈고 자주 고름을 달아 내외가 갖추었음을 나타냈다. 치마와 저고리의 색과 천은 계절에 맞는 것으로 택하여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었다(이길표, 이일희, 2000).

### 4) 다식

연지화개기호차에서는 오색다식을 만들어 손님께 대접하였다, 흑임자, 송화가루·연자가루에 꿀과 시럽을 넣어 만들었다. 또 녹말가루와 가루차, 녹말가루와 오미자물, 녹말가루와 생강즙에 꿀과 시럽을 넣어 반죽해서 5색다식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오행의 상생작용을

<표 1> 오색다식의 재료. 무늬, 색깔, 오행(五行)

재료	무늬	색깔	오행(五行)
녹말, 가루차	인(仁)	청(靑)	목(木)
녹말, 오미자	연꽃	적(赤)	화(火)
송화가루·연밥	태극(太極)	황(黃)	토(土)
녹말, 생강즙	차(茶)	백(白)	금(金)
흑임자	화(和)	흑(黑)	수(水)

이길표, 이일희, 2000, <연지화개기호차연구>, 한국차학회지, p.34

뜻한 것이다. 크기는 지름 21mm 두께는 6mm로 한 입에 들어가도록 작게 만들었고 손님접대와 반기용으로 만든 것은 조금 크게 만들어 피어서 장식적 효과도 보았다. 재료와 무늬 모양과 오형 등은 다음과 같다.

### 5) 음악

연지화개기호차에서 처음에는 자연의 소리로 손님을 낭만과 풍류적인 기분으로 맞이하였고, 행다를 시작할 때는 산사의 종소리와 목탁소리를 넣어 경건한 분위기를 이루었고, 그 후 시를 지어 읊을 때에는 대금 소리를 넣어 차회 분위기를 조용하게 하였으며 차를 마실 때에는 가야금 산조를 넣어 흥겨운 분위기를 만들었다. 이렇게 편집한 후 음악전문가들과 차인들에게 듣게 하여 평가를 받고 보강하였다.

음악은 다음의 세 음반에서 부분적으로 발췌하여 편집했다.

- (1) 자연음과 인공음(효과 시리즈 I)
- (2) 다악 제1, 2집
- (3) 박용호 대금소리(평조회상)

### 7. 행다의 시행

#### 1) 행다 인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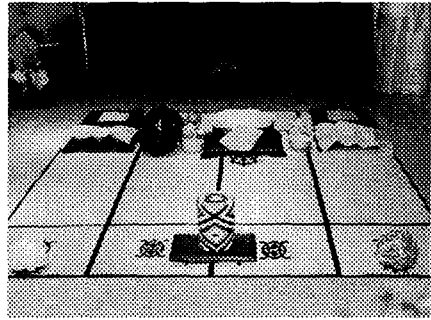
- (1) 행다인 4명(차를 우리는 주부, 주부를 돕는 큰 며느리, 작은며느리, 딸)
- (2) 손님 4명
- (3) 기타가족

#### 2) 차석배치

주동객서(행다인은 동쪽, 손님은 서쪽에 좌정)가 원칙이나 무대연출상 관객을 향해 남향으로 앉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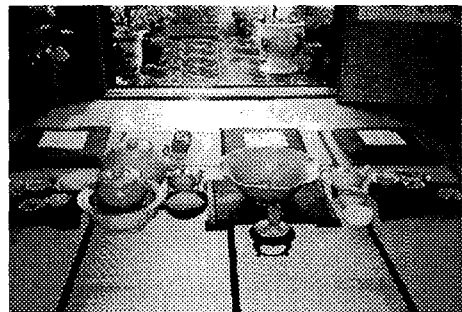
### 3) 다구배열

<그림 3> 행다전의 다구배열 및 다식의 모습



(2000. 6. 20), 일본 후쿠오카 아쿠로스회관 한·일 교류 차회에서

<그림 4> 첫상포를 거둔 후의 다기의 모습



논현동 필자의 다실

#### 4) 차 우리는 순서 및 시회

- (1) 냉동연화차는 차회를 시작하기 30분 전부터 해동시킨다
- (2) 손님이 입실하여 상견례한 후 좌정한다 (주부와 손님은 평절, 며느리와 딸은 손님께 큰절을 올린다. 손님은 답례절로 답배한다.)
- (3) 행다인(주부, 작은며느리, 딸)은 말은 위치에서 차와 다과를 준비한다.

연꽃속에 차를 넣어 만든 냉동연화차 우린 모습(A)과 차를 넣지 않고 만든 냉동연화차 우린 모습(B)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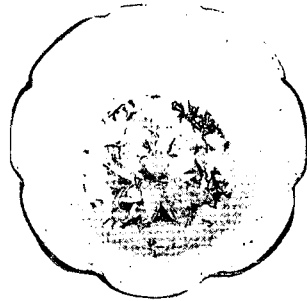
A: 연꽃 속에 차를 넣어 만든 냉동연화차

ㄱ. 냉동연화차는 차회를 시작하기 30분전 부터 해동시킨 모습

ㄴ. 연지다기에 연꽃을 고정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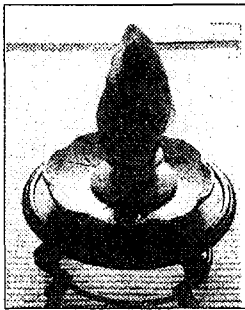
ㄷ. 40~50℃로 식힌 물을 표주박으로 떠서 서서히 연지다기에 부으며 차를 우려낸다.

<그림 7> ㄷ. 연꽃위에 차잎이 보이는 모습



<위의 논문>, p.25

<그림 5> ㄱ. 차를 넣은 냉동연화차의 해동 모습



이길표, 이일희, <앞의 논문>, p.25

B: 차를 넣지 않고 만든 냉동연화차 (차를 따로 차우림 틀에 넣어 우려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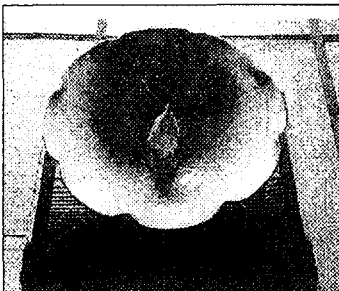
ㄱ. 냉동연화차는 차회를 시작하기 30분전 부터 해동시킨 모습

ㄴ. 구멍이 많이 뚫린 차우림 틀에 차를 넣어 연지다기에 고정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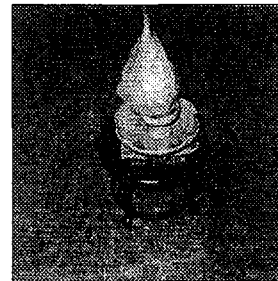
ㄷ. 차우림 틀에 냉동 연화차를 고정시킨 후 40~50도의 물을 표주박으로 떠서 연지다기에 부으며 차를 우려낸다.

<그림 8> ㄱ. 차를 넣지않은 냉동연화차의 해동

<그림 6> ㄴ. 해동 후 연지다기에 고정시킨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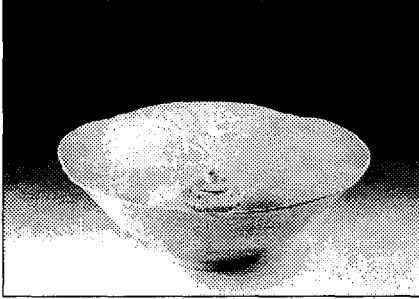


<위의 논문>, p.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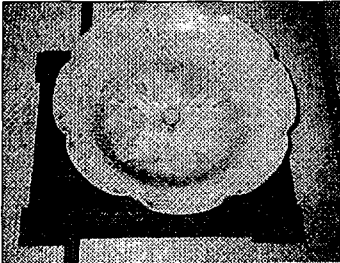
<위의 논문>, p.24

<그림 9> 나.차우림 틀과 연지다기



(정인석 작, 2004)

<그림 10> 다.깨끗한 연꽃의 아름다운 모습



논현동 필자의 다실

연꽃 속에 차를 넣어 냉동 연화차를 만들면 우렸을 때에 연꽃위에 차잎이 겹게 나타나서 연꽃의 모습을 아름답게 감상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차를 담아 우려내는 차우림틀을 만들어 밑에 고정시키고 그 위에 연꽃을 꽂아 우리면 연꽃을 아름답게 감상할 수 있다.

(4) 작은며느리와 딸은 주부(어머니)를 따라가서 손님께 차와 다과를 드린다.

(5) 작은며느리와 딸이 두 번째 차를 우리는 동안 주부와 손님은 담소하거나 시를 구상한다.

(6) 두 번째 차를 마시면 큰 며느리가 지필

묵과 경상을 들여온다.

(7) 손님과 주부는 연꽃을 주제로 시를 써서 돌아가면서 읊는다.

연잎 위의 맑은 이슬 연지에 받아  
금실초섬 숨겨놓은 연화차 우려  
그 향기 퍼지니 불타의 마음일세 (손님 1)

술잎 끝에 달린 향해 자기에 받아  
송풍회우 소리에 연화차 우려  
찾잔에 가득하니 신령스럽네 (손님 2)  
매화 가지에 쌓인 눈 옹기에 받아  
연화차와 설매수가 어우러지니  
청한한 그 향기 고결하구나 (손님 3)

태평양 큰 기운 다기에 받아  
성신학우 후꾸오까 다우 어우러지니  
연향과 다향속에 화합 이루세 (손님 4)

천지의 순리를 이 몸에 받아  
자연과 인간이 하나가 되니  
현묘한 그 자리 여여하구나 (주부)

이시는 2000년. 6월 20일에 일본 후꾸오까 아쿠로스회관에서 있었던 한일교류 차회에서 성신여자대학교 정보산업대학원 예다전공 석사과정 학생들이 지은 연시이다. 이와같이 차회에서는 시회를 통하여 정신적 차원을 높일 수 있다.

(8) 세 번째 차가 들어오면 손님과 주부가 마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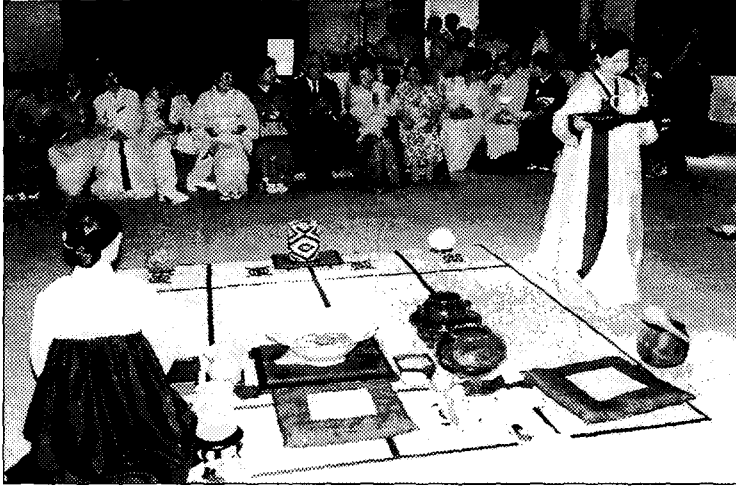
(9) 즐겁고 보람있는 시간을 가졌음에 감사하고 절을 나누며 작별인사를 한다.

(10) 문 밖까지 배웅한다.

(11) 연지다기에 남은 차를 기타 가족들이 나누어 마신다(다기가 크므로 30~40명이 마실 수 있다).

(12) 뒷정리를 한다.

<그림 11> 일본 후쿠오카 아쿠로스회관에서 연지화개기호차 시연 모습



2000. 6. 20, 한·일 교류 차회에서

위의 연지화개기호차에서 한 가족의 여인 4명(주부인 시어머니, 며느리2명, 딸)이 손님 4명을 모시고 화목한 가운데 차, 다식, 복식, 예절, 언어, 실내분위기, 시회 등 한국의 전통적인 가정의 모습을 보여 주었다.

모든 나라의 문화와 풍속이 한 가정으로부터 이루어짐을 생각할 때 가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한다. 특히 현대의 핵가족 중심사회에서 며느리들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시누이와 인화단결하여 깨끗하고 정성스럽게 손님에게 차를 내는 것은 본받을 만하며 공동체의식도 함양할 수 있다고 본다.

1년 후에 있을 가정의 일을 미리 계획하여 냉동 연화차를 마련한 준비성과 연꽃이 없을 때 사용하여 그 희소성을 살린점과 연꽃으로 아름다운 분위기를 창출하여 여러 사람에게 큰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것은 한국여인의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다. 주부는 냉동연화차를 우려서 손님에게 대접한 후 연지다기에 물을 더 부어 활짝 핀 연꽃을 감상하도록 하며, 참석자중 원하는 사람은 앞으로 나와서 주부가

직접 차를 떠 주거나 자신이 떠 마시기도 하는 자유스러운 분위기를 만들 수도 있다.

현대는 모임이 대형화하는 경향이므로 여러 사람이 모이는 큰 행사에서 냉동연화차를 사용하면 많은 사람이 마실 수 있고 큰 기쁨을 줄 수 있어서 좋다. 또한 한국과 일본의 가루차 인구를 제외하고는 전 세계적으로 거의 잎차를 마시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앞으로 연꽃을 많이 재배하고 과학적으로 가공 처리하여 많은 양의 냉동연화차를 만드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본다.

냉동연화차 만드는 법, 보관법, 운반시주의점, 꽃의 크기와 차의 양, 물의 양과 온도, 다기의 개발 등 과학적인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 IV. 결론

우리나라의 차문화는 고조선시대부터 있어 왔으며 삼국시대와 고려시대, 조선시대까지도 그 정신의 맥이 이어져 우리민족의 생활과 정신 속에 남아있다. 차를 마신 계층은 왕족과

승려, 선인과 화랑, 학자와 선비 그리고 일반 백성들이었다. 왕실에서는 궁중 의식 속에 다례의식의 절차가 있었으며 사원의 승려들은 불전 헌과의식 속에 차를 공양했으며 유학자들은 그들의 윤리의식에 차를 유입하여 다례의식을 제정하였으며 도가의 사상가들은 자연과 합일하려는 신선사상에 의하여 풍류의 정신세계를 완성하였다.

이러한 다례의 절차 중에서 엄격한 궁중의식이나 관혼상제례의 다례절차보다는 조선시대 사대부가 영수합 서씨와 그 가족들이 지은 연시를 통하여 현대의 차생활과 조화되는 연지화개기호차를 구상해보았다. 조선시대 이이의 「격몽요결」에서 몸가짐과 마음가짐의 기본을 터득했고, 이길표, 최배영의 「생활예절」에서 사대부가의 복식을 참고했으며 오행에 맞추어 다식을 만들었다.

연지화개기호차는 연꽃이 피는 시기에 연꽃을 따서 화심에 차를 넣어 냉동실에 보관하여 냉동연화차를 만들었다가 필요한 시기에 연꽃 형태를 상징하여 만든 넓은 연지다기에 우려서 아름답고 향기로운 차를 가족 또는 손님과 화목하게 나누어 마시는 풍류적인 생활다례이다. 이때 시회를 하여 한층 차회의 흥취를 높일 수 있다.

서양문물의 이입으로 우리나라 전통의 인사법과 의복, 차문화와 다식문화가 본래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는 때에 연지화개기호차에서 본래의 모습을 찾은 것 같아 보람이 있다. 이러한 생활다례가 실생활에 정착되어 앞으로 관혼상제례 등의 의식 다례에도 자연스럽게 접목되어 차문화와 예절이 조화롭게 이루어져 동방예의지국의 모습을 되찾게 되기를 바란다. 앞으로 더 많은 연구를 하여 차문화와 예절이 함께 조화되어 격조 높은 한국다례문화로 국민적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의 정체성을 살려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본다.

## 【참 고 문 헌】

- 1) 김득중(1997), 「실천예절개론」, 교문사
- 2) 김미희(1991), 「명원다화」, 명원기념사업회
- 3) 김장생(1990), 「가례집람도설」, 유교사전편찬위원회
- 4) 도용저, 김명배역(1985), 「중국의 다도」, 명문당
- 5) 동아대학교 고전연구실(1971), 「역주 고려사」, 동아대학교 출판사
- 6) 박희준 著(1994), 「차한잔」서울, 신어림
- 7) 안덕균(1994), 「신동의 보감」연린책들
- 8) 이길표, 이일희(2000.9), <연지화개기호차 연구>, 「한국차학회지」, 한국차학회
- 9) 이길표, 최배영(1977), 「생활예절」, 시민대학출판부
- 10) 일연 저 · 김원중 역(2003), 「삼국유사」, 을유문화사
- 11) 이이저, 이민수 옮김(2003), 격몽요결
- 12) 최남숙, 이일희(2004), <생태적 관점에서 본 차문화공간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13) 서공(1977), 「고려도경」, 민속문화추진회
- 14) 석용운(1994), 「한국다예」, 도서출판 초의
- 15) 성백효(1994), 「소학집주」, 전통문화연구회
- 16) 정영선(1998), 「한국 茶文化」, 너럭바위
- 17) 정영선(2002), <고려의 다례에 관한 연구>, 「한국차문화연구지」 제11권, 한국차문화연구소
- 18) 정인석(2004), <연지형 차우림 발(鉢)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19) 최남숙 · 이일희(2004), <생태학적 관점에서 본 차문화공간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0) 최무장 · 임연철(1992), 「고려벽화고분」, 신서원